

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극심한 가뭄 속 ‘농업인 물복지’ 총력

윤성수 기자 | 승인 2026.08.13 16:47

양수장 5곳 24시간 가동...퇴수 재활용해 농업용수 확보
저수율 실시간 관리·말단부 양수장 설치 추진해 영농피해 최소화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가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해남지역 양수장 5곳을 24시간 가동하고 있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매일일보 = 윤성수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가 기록적인 폭염과 강수량 부족으로 농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리자 양수장을 24시간 가동하고 퇴수를 재활용하는 등 농업인의 물 복지 실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7월 9일부터 8월 8일까지 한 달간 광주·전남지역 누적 강수량은 17.6mm로 평년의 17.6%에 머물렀다. 1973년 이후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로 적은 강수량이다.

장기간 이어진 폭염으로 증발량과 농업용수 수요가 동시에 늘면서 저수지 수위도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벼 등 농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해남·완도지사는 영산강사업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맹진·화원·문내·황산 등 양수장 5곳을 24시간 가동해 해남지역 주요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용수 확보가 어려운 현산면에서는 백포방조제 백포1·2배수갑문의 비상수문을 폐쇄하고 배출되는 물을 다시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등 가용 수자원 확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

농업용수 공급시설 확충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정경훈 지사장은 지난 10일 해남군의회를 방문해 가뭄 대응과 농업용수 공급 현황을 설명하고, 용수 공급이 취약한 지선 말단부에 양수장을 설치하는 사업을 건의했다. 군의원들도 안정적인 용수 공급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남·완도지사는 앞으로 기상과 저수율 변화를 면밀히 살피면서 가뭄 단계별 대응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물이 필요한 농경지에 적기에 용수를 공급해 농업인의 영농 불편을 덜고 가뭄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정경훈 지사장은 “극심한 가뭄에도 농업인이 물 걱정 없이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가용 시설과 수자원을 활용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물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성수 기자